

식민·문화·산업... 도시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

도시사학회·연구모임 공간탐파 지음

대전, 군산, 다롄, 하얼빈, 나하, 페낭, 싱가포르, 말라카...

위에서 열거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얼핏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속고해보면 이들 도시들은 '식민'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흔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은 '이민자들이 건설한 식민도시'였으며 군산은 '식민의 기억'을 품은 도시이다. 다롄은 '남만주철도의 본진'이었으며 하얼빈은 '국적과 인종의 진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뿐인가. 나하는 '전쟁의 상처가 남은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도시들은 어떤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까. 평양, 부산, 타이난, 타이베이, 마쓰야마, 호이안... 법박하게 말하면 이들 도시들은 문화유산이라는 카데고리에 편입된다 할 수 있다.

사실 도시는 많은 이들에게 서로 다른 이미지를 환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응



결돼 있기에 중층적인 관점과 기적이 투영된다.

위에 언급한 도시는 동아시아에 포진해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반도 등에 분포한다.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는 동아시아 도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조명한 책이다.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시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서구식 근대도시의 인프라와 근대적 도시계획 등을 아우른다.

저자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도시사 학회와 연구모임 공간탐파의 연구, 집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고운수 대전시 학예연구사를 비롯해 김봉준 국립타이완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수로, 김은진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류영진 규슈산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유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이 동아시아 도시를 키워드로 글을 게재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나름의 특수성을 내재하고 있다. 민유기 교수는 "동아시아는 20세기 막바지에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지구적 차원의 경제·문화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대두됐고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했거나 또는 성장 중인 도시들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는데 '식민도시', '문화유산도시', '산업군사도시'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1부 '식민도시' 가운데 대전은 1904년 경부선 개통과 맞물려 만들어진 신도시다. 도청이 이전 공주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면서 성장했다. 일본인들의 이주가 도시 개발의 주요 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산은 "대학제국 때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를 꿈꿨으나 일제강점기에 식민도시"로 발전했던 도시다. 원도심은 여전히 식민도시 모습이 남아 있지만 새만금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랴오둥반도의 항구도시 다롄은 1898년 러시아의 조차지 항구도시로 생겨났다. "육로와 해로의 결절점으로 시기별로 중국, 일본, 러시아·소련의 영향"의 자장에 놓여 있었으며 현재는 중국의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부의 문화도시들은 일정 부분 식민도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역사와 아울러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어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 역사도시 부산에서 주목을 받는 곳은 감천마을이다. '가난의 상품화'라는 비판적 시선을 통해 '낙후됐다'는 이유만으로 박제된 지역들이 재발견되는 현상은 과잉 관광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타이난은 대항해시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건설된 지역이다. 그러나 명정 교체기 반청운동을 주도한 정성공이라는 인물에 의해 네덜란드인이 축출되고 새롭게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일본 영향으로 타이완 중심이 타이난에서 타이베이로 점차 옮겨갔다.

3부 '산업도시'는 동아시아 곳곳에 들어선 다양한 도시들을 주목한다. 전군대 읍성에서 일제강점기 대륙병참기지화를 위해 건설된 울산, 일본철소비료주식회사가 건설한 공업도시 흥남, 만주국 대표도시로 성장했지만 개방이후 쇠퇴한 선양 등 다양한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만날 수 있다.

〈서해문집·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의 국제금융도시인 다롄은 18~19세기에는 시기별로 중국, 일본, 러시아·소련의 영향의 자장에 놓여 있던 도시였다. 〈서해문집 제공〉

국자전

정은우 지음

미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은 휴직 상태다.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왕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받았던 후유증 탓이다. 현재 그녀는 복직을 앞둔 상태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스스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미지는 엄마와 밥상에 앉았지만 독립이라는 말을 제대로 꺼낼 수 없다. 엄마인 국자가 정성들여 차린 밥상을 보면 독립에 대한 의지가 무너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번 독립 선언의 양상은 이전과는 다르다.

소설가 정은우의 첫 장편 '국자전'은 손맛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국자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펼쳐진다. 지난 2019년 장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한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특출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 겪는 사랑과 고통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장편은 연재 전문 웹진 '주간 문학동네'의 첫 선정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소설의 배경은 지난 80년대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초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세계의 작동 논리는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능력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영웅과 반동이라는 차이를 준동한다. 초능력자로 인정되면 국가에 고용되고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능력과 별개로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면 반동으로 몰리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소설에서 미지는 엄마가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고백에 순간 긴장하고 만다. 혹은 엄마가 자신에게도 그런 방법을 썼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가 하얗고 만다. 소설은 손맛으로 승부하는 하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이야기한다. 삶을 긍정하는 유머와 한편으로 세계와 대면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문학동네·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백에 담다

김효정 지음

법박하게 말하면 모든 창작은 여백 속에서 탄생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여백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혹은 상상적인 여백일 수도 있다. 여백은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음'을 뜻한다.

일상에 지치고 속도에 치인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여백을 추구한다. 잠시 쉴 수 있는, 아니 숨을 쉴 수 있는 자신만의 비어 있는 여백을 그리워한다.

김효정 시인의 시집 '여백에 담다'는 바쁘게만 질주하는 많은 이들에게 잠시 멈춰 서서 빈 공간, 빈 시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번 작품집은 광주 출신으로 제4회 동서커피문학상과 제16회 사회 김장생 신인문학상 대상으로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이다.

시인은 '늑속 추억', '구멍 난 기억'이라는 말로 시간의 여백에 대한 소회를 말한다. '만져도 보고 담아도 보는' 것은 여백을 실제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의미다.

"5일 장이 열리는 날이면/ 모란역 5번 출구는 전망이 흐른다// 영역대로 철심을 박고 줄을 묶은 천막들이, 이마를 맞대고 서로를 기웃거리다 언니, 오빠를 부르며 끌어당기는 손길들, 몇 마디 주고 받는 인사와 말투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눈빛에서도 정이 묻어났다..."

5일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푸근하면서도 따스하다. 대규모 상품이 진열된 마트와 세련된 쇼핑물의 풍경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속도를 벗어버린 사람들로 마추친 추억을 펼쳐놓은" 모습은 오래 전 익숙한 70~80년대의 풍경을 환기한다. 작품은 무한경쟁에 매몰돼 잠시의 여백도 잃어버린 채 무한질주에 내몰리는 이들을 향해 던지는 위안으로 수렴된다. 한편 김효정 시인은 제2회 수주문학상 우수상, 제5회 매일시니어문학상 시부문을 수상했다.



〈시산책·1만1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위기, 지구의 마지막 경고

반기성 지음

올해만 해도 전 지구적으로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대형산불, 기록적인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강남 일대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115년간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침수돼,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약 90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50개 주 중 28개 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요세미티 공원에서는 대형 산불이 확산돼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지목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 최고 기상 전문가 반기성 케이워더 예보센터장이 쓴 '기후위기, 지구의 마지막 경고'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실상, 기후위기가 경제·금융·산업·환경·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학계의 연구, 이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자초한 지구온난화로 더 빨라진 기후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겐 미래는 없다"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2050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수소경제, 석탄발전 폐지, 소형 모듈 원전 육성 등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이 책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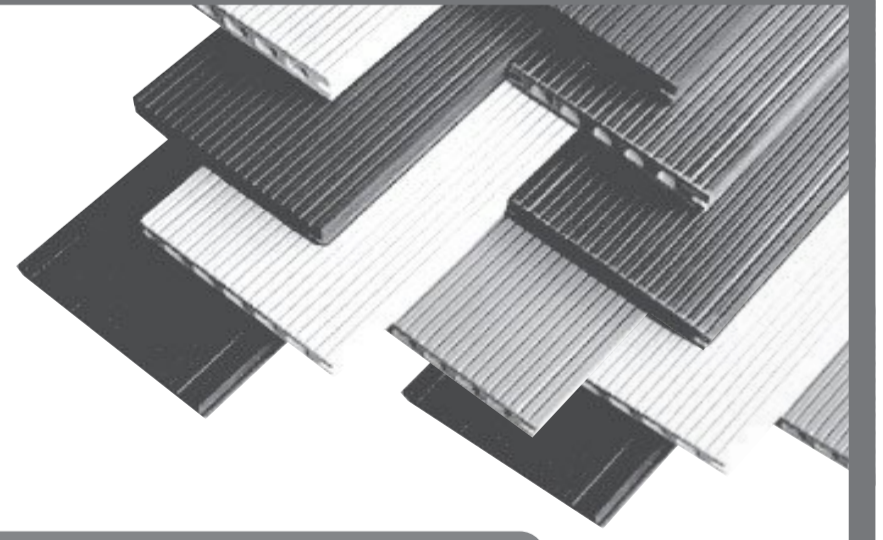


〈프리스마·2만3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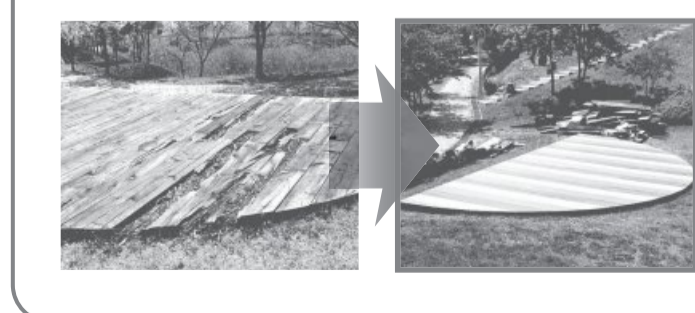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